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4/14(주일) 예배

마태복음 21:1-11

1.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지 그 의미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것은 왕이나 개선장군들에게 했던 환영 세리모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가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종려 주일의 의미에 대해 짧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나귀 주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나귀 주인의 헌신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 나귀의 주인에게 나귀를 내어 놓으라며 했던 말은 한 마디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에 그는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다시 돌려 받는다는 보장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나,
그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이해관계보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이 위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저 평생 짐이나 실어 나르며 살았을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쓰심' 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하는 것을 목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봅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또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목원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